

**사 설**

**‘위드 코로나’ 급제동 불가피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일에도 4천 명에 육박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3,928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24일(4,115명) 처음 4천 명을 돌파한 이후 닷새 연속으로 3900명~4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647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많아졌다.

**코로나19 신규 3,928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  
대통령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의 주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슬럼프에 트였던 자영업자와 여행업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4차 유행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락 사회전략반장은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강화를 검토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자영업자들도 다시 긴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불만을 표사했다.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와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여행업계 역시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21일 유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했다. 확산세가

가 커지면서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했던 유럽은 재봉쇄에 나섰다. 오스트리아가 지난 22일부터 전국 봉쇄에 나섰고 슬로바키아도 25일부터 2주 동안 전국 봉쇄조치를 시작했다. 이따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하늘길을 열었던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현지 여행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확진자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접촉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이 직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방역이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지 여부도 함께 발표된다.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백신을 접종해야 하기에 사실상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된다. 현장에서는 응급실 격리시설과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면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뜻한 겨울 전복에 희망을 나눠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제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개최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음달 1일부터 성금모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도움필요한 이웃 늘**

사랑의열매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 ‘희망2022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희망2022나눔캠페인 슬로건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으로 코로나19를 나눔을 통해 함께 극복하고 회복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목표액 1%를 달성할 때마다 LED 수은주가 1도씩 올라가게 된다.

전복사랑의열매는 올 한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배부금 184억원을 지원했다. 전복사랑의열매가 지원한 184억원의 배부금을 저소득 시민에게 지원되는 명절지원금과 다양한 주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에 지원했다.

아동청소년 꿈성장지원사업 등의 기획사업에 23억원,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신청사업 5억원, 지정타사사업 89억원, 현물지원 39억원, 긴급 생계의료비 및 재해복구 지원 7억원 등 총 184억원이 전복지역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배분됐다.

긴급복지지원안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

을 위한 지원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복 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법

인과 개인 기부액이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구지역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84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억2,000여만원보다 9억2,000여만원 줄었다.

기부자의 유형별로 보면 경기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법인 기부액이 지난해 49억여원에서 올해는 40억여원으로 8억6,000만원이나 감소했다.

개인 기부금액도 37억2,000여만원에서 35억여원으로 줄었지만, 개인 사업자의 기부금액은 9억천여만원에서 9억2,000여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복도 예외가 아닐 듯 싶다.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되기를 바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도민들의 나눔 온도가 전복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해마지 않는다.



**데스크의 눈**

**익산 도소주(屠蘇酒)의 전통 살리자**

**이 종근**

문화교육부장

예전엔 설 풍습으로, 부녀자들의 문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때엔 여자 하인을 곁에 단장시켜 일가 친척과 그밖에 세배해야 할 어른을 찾아 인사와 세배를 대신 전하던 ‘문안비(問安婢)’, 새해를 송축하고 재앙을 막기 위해 신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가진 그림을 선물로 주고받던 ‘세화(歲畵)’, 나쁜 기운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의 ‘도소주(屠蘇酒)’를 새해 첫날 아침에 마시기도 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마다의 다짐 거리를 안고 산에 올라 산의 정기를 받으며 소망을 빌거나, 떠오르는 첫해를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갔다. 해를 배경으로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는 언제나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고유한 새해맞이 풍습이 있다. 여러 세시풍속 가운데에서도 술은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좋은 이들과 함께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행복하고 위안이 아니던가. 설날에 마시는 세주(歲酒)로 도소주(屠蘇酒)가 있다. 도(屠)는 ‘잡다’라는 뜻이고, 소(蘇)는 사귀(邪鬼)의 이름이니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술’ 또는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소주(屠蘇酒)’의 한자를 해체해 의미를 살펴보면 죽은(尸) 자(者)를 위해 나물(菜)과 생선(魚)과 밥(禾)을 차례상에 올려놓았다가 마시는 술이다. 그러다 보니 묵은해를 보내며 새해맞이 풍속으로 집집마다 정성껏 빚은 가양주(家釀酒)를 차례주로 올리고 액땀으로 마신 의미를 지닌 술이다.

‘도소주(屠蘇酒)’는 명의(名醫) 화타에 의해 만들어진 처방이라 알려져 있다. 옛날에는 병에 걸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해가 시작되는 날(음력 1월 1일)에 온 가족이 모여 ‘올 한 해 무병 건강하자’라는 의미로 이를 마셨을

のかもしれ. 이날엔 정초에 가례(家禮)를 지내고 음복(飲福) 술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이는 어르신들로부터 주시는 대접이며, 조금 성장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 전기 익산 출신의 문신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의 ‘양곡집(陽谷集)4권’에 ‘제야(除夕)’라는 시에 설날에 마시는 술이 소개된다. ‘석양빛이 기울어 깊은 산골에 이르니, 양 귀밀털에 흰 눈과 서리만 더해지네. 세 잔의 남주(臘酒)에 흔미하게 취하고서 황계가 백안가를 부르는 것을 듣네. 강과 산을 방문할 것을 갖게 생각하다가 높은 배계를 베고 자니 한 해가 바뀌었네. 오늘밤에는 가장 좋은 집에서 도소주를 마시니 이미 임자년(壬子, 1552) 사람이 되었네. 남쪽으로 와서 14번 봄이 돌아옴을 보며 손수 매화를 심었는데, 모두 꽃을 피웠네. 술잔을 들어 감히 새해 축하를 하며 일문이 부끄럽고 또한 무재하기를 기원하네’

‘남주(臘酒)’는 ‘설날에 빚어 나눠 마시는 술’ 또는 ‘연말연시에 마시는 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책 7권의 ‘丙辰除夕(병진년 제석, 1556년)’이란 시(詩)엔 ‘도소주’ 이야기가 나온다. ‘정소리가 연말이 마을에 시끄럽고, 구나(駒籠, 역귀 쫓음)에 아이들이 모이네. 해의 차례가 빨리 빨리 이르니, 자주 봄에 이르다. 단지 새로움을 자랑하려 하는데, 어찌 옛날의 어리석음을 지키려는가? 도소주를 가득 따라서 나중에 마신들, 다시 어떤 말을 하겠는가?’ 라고 하여 반가와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도소음(屠蘇飲)’이 성행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늦게 마시는 술이 ‘도소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권7 ‘제석(除夕)’엔 ‘한제(寒齋)에서 제사를 지내며 모두 잠을 자지 않고 등잔불에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이어지네. 사랑에서 웃으로 마냥 술

배미를 사로잡는 놀이를 하고 한 잔의 도소주를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 전한다’고 했다. 그에게도 ‘도소주(屠蘇酒)’는 사악한 기운을 잡는 술’ 또는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술’로 해석할 수 있다. 같은 책 권9의 ‘경신년영상임춘병일일(庚申年迎祥立春併入元日, 1560년)’시에선 ‘어릴 적엔 항상 세월이 느린 것을 원망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 달려가는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을 알겠네. 일 년은 진정으로 순식간이라, 집에서 도소주 석 잔을 차례로 마시네’라고 했다. 60세면 60km, 70세면 70km의 속도로 가는 게 삶이더라.

같은 책 권1의 ‘영상(迎祥)’엔 ‘구나(駒籠, 역귀 쫓음)하는 무리가 밤에서 새벽까지 이르러 하고 쇠북소리는 어저러이 사랑에 울리네. 곡식이 다하여 한 해 보람 근심이 뒤따라니, 한 바탕 환호성이 새 봄에 들어가네. 사랑하지 않고 도소주를 마시니라고 했다. 그는 연말연시에 도소주를 즐겨했다. 그만큼 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리라. 이제는 집집마다 세주를 만들던 풍습도 많이 사라지고 전통주를 만드는 곳에서도 세주를 구하기 어렵다. 오랜 세시풍속으로 내려오는 풍습인 세주를 전통주 양조장과 술테마 박물관에서 계승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익산의 도소주를 개발하거나 또는 도소주로 쓸 술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코로나시대를 맞아 설날을 맞아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을 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문화의 지킴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 후대에 가면 갈수록 바래 버릴 설날 풍습이 잘 전승되기를 바라보면서, 변화와 개혁으로 옛것을 다시 찾는 전통문화의 계승으로 다시 복원돼 그 풍습이 되돌아 오길 기대해본다.

**은누리**

**2021년의 위로**

까지 난적 울산현대와 시즌 막바지 우승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홈구장 ‘전주성’에서 전북이 울산을 3대2로 이긴 게 올해의 경기였다. 전북과 울산은 홈사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FC처럼 승마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수년째 그라운드를 달구고 있다.

야구에서는 일본의 투타 겸업 ‘천재’ 오타니 쇼헤이(27)가 단연 압권이었다. 북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스앤젤리스 에인절스 팀 간판투수자 타자인 그는 지난 19일 올해의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그의 클래스는 아시아계

가 아니다. 역사상 최고 야구선수라는 베이브 루스에 비견되거나 그를 뛰어넘는다. 이번 시즌 투수로서는 130.1이닝 투구-탈삼진 156개, 타자로서는 138안타-100타점-103득점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120년 역사상 단일시즌 ‘투수(=100이닝+100탈삼진+100안타+100타점+100득점)를 해낸 선수는 오타니가 유일하다. 그의 MVP 수상이 발표되던 날 17시 17분,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엔 ‘축 17번’이란 대형 글씨가 아로새겨졌다. 등번호 17번인 오타니에 바치는 일본인들의 감사였다.

오타니는 ‘순둥이’란 점에서 한국의 축구 월드컵스타 손흥민과도 닮았다. 인성과 매너에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전북엔 고교야구팀 3개가 있다. 군산상고, 인성고, 전주고 야구팀 졸업반 중 6명이 올해 프로야구로 진출했다. 우리 고장에서도 고학의 사랑과 자람이 되는 멋진 플레이어가 탄생할 것을 믿는다. /임용진(논설교론)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는 공익광고입니다.

# 임실 치즈 테마파크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aerial photograph of the Imseil Cheese Theme Park. The park is filled with vibrant, colorful flower beds in various shapes and sizes, including one shaped like a large wheel of cheese.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everal large, modern buildings with white facades and green roofs. The sky is blue with some clouds.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cheerful, showcasing the park's theme of cheese and flowers.